

특검, 靑 압수수색 ‘카운트 다운’

관저·의무실·경호처·민정수석실 등 ‘외과수술식’ 검토

박대통령 조사… ‘진입 압수수색’ 헌정사 유례 없어

“늦어도 2월 초”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겠다는 수사 일정을 공개한 특검이 이르면 이번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대면 조사 전까지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압수물 분석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특검팀은 설 연휴를 전후로 실행에 나서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핵심 관계자는 22일 “아직 날짜를 정한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 압수수색을 해야 할 것”이라며 “(법률적) 검토와 (실무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도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강제수사 부분은 특검 수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특검보는 이어 “현재까지는 구체적 일정이 안 나왔지만 차질 없도록 정확하게 향후 일정 조율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박 대통령 측에서 대면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수사 방법이 없어서 다른 방안이 없다”면서 “대면조사 필요성을 납득시킨 이후에 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핵심 수사 대상인 ‘최순실 국정 농단’과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강제수사권을 발동, 청와대 내부에 직접 들어가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실질적인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검팀은 ‘비선 실세’ 최씨의 국정농단,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외에도 의료법 위반 정황과 관련된 ‘세월호 7시간’,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유기·직권남용,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등 청와대가 연루된 광범위한 의혹 전반을 수사 중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 관저, 의무실, 경호처, 민정수석실, 비서실장실, 정부수석실, 청와대 문서가 저장된 전산 서버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헌정사상 수사기관이 청와대 내부에 진입해 자료를 확보하는 압수수색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진 적이 없어 압수수색의 성사 여부는 전적으로 청와대의 ‘협조 의지’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감찬 ‘왕실장’ ‘신데렐라’

도관들과 이동하고 있다.

특검팀은 청와대가 이번 압수수색 역시 거부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압수수색 희망 장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공간이 군사보호구역의 성격을 띠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를 압박할 전망이다.

또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와 집행 과정을 국민에 공개해 압박하는 전략도 병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

한편 지난 21일 출범 한 달을 맞은 특별

검사팀에서 구속된 인사만 10명에 달한다. 역대 11번의 특검 수사가 있었지만, 구속자가 이처럼 많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애초 특검법상 명시된 14개 수사 대상을 70일(연장할 경우 최대 100일)이라는 한정된 시한 내에 다 들여다볼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있었지만, 막상 수사가 시작되자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의혹을 파고들어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문화·예술 블랙리스트에 관련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교도관들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임 트럼프 ‘美 우선주의’ 선언

방위비 분담 인상 요구편

한미 동맹 흔들릴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제45대 대통령에 공식으로 취임했다.

트럼프는 이날 수도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 앞 광장 특설무대에서 100여만 명의 인파가 모인 가운데 취임식을 하고 세계 최강국 대통령으로서 4년의 여정을 시작했다.

취임연설에서 예상대로 철저한 국익 중심의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의 새 정권 출범은 동맹과 자유무역을 두 축으로 구축돼온 전후 70년 세계 질서의 대대적인 변혁을 예고했다.

간간이 비가 뿌리는 가운데 취임식은 오전 11시 31분 트럼프가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오른쪽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며 등장하면서 시작했다. 정오(한국시간 21일 오전 2시)에 트럼프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 앞에서 선서한 데 이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주제로 취임연설을 했다.

트럼프는 연설에서 “다른 나라의 군대에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우리 군대는 매우 애석하게도 고갈되도록 했다”고 한 뒤 외교와 동맹 관계에 대해 “자국의

이익이 우선”, “새로운 동맹을 조성할 것”이라고 각각 밝혀 동맹의 재편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러나 새 정권의 출범을 알리는 통합과 축제의 무대가 돼야 할 취임식은 ‘분열적’ 대선전의 후유증 탓에 ‘반쪽 행사’로 전락했다.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에 따른 ‘정통성 시비’가 일면서 흑인 인권운동의 아이콘인 존 루이스(민주·조지아) 하원의원 등 의원 60여 명이 취임식 보이콧을 선언했으며 수십만 명의 ‘반(反) 트럼프’ 시위자들이 워싱턴DC로 몰려들었다.

특히 반대 시위자들 일부가 백악관 북동쪽 맥퍼슨 광장 등에서 인근 상점에 돌을 던지는 등 폭력시위에 나서자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차 여러 대가 파손되고 경관이 부상하는 등 소란이 벌어졌다.

트럼프의 취임에 따라 G2 갈등이 격화해 그 불뚝이 튀고 트럼프 정권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거나 한미 FTA까지 고지자고 들면 한·미 동맹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경한 트럼프 안보진용이 군사유선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둘러싼 상당한 긴장이 조성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

리퍼트 대사 후임 언제 오나

트럼프 정부 후임 내정 안해

최소 수개월 공백 우려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주한 대사였던 마크 리퍼트 대사가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에 맞춰 임무를 종료하고 지난 20일 오후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어서 후임 대사가 언제 빈자리를 채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후임 주한 미국대사가 부임하기까지는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심지어 올해 상반기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가 후임 대사를 내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후임자를 내정하고, 의회 인준정통화를 거치려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부 진용이 완성되지 않은 것도 후임 주한대사 인선 지연 요소로 꼽힌다.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위가 오바마 행정부에서 정치적 고려로 임명된 주요국 대사들에 대해 취임일까지 주재국에서 떠나라고 지시한 데 따라 리퍼트 대사가 20일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런 정치적 고려도 후임 대사

부임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이 후임 대사 선임과 관련해 탄핵정국인 한국의 새로운 리더십이 갖춰질 때까지 상황을 지켜볼 수도 있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한편 2년3개월여 임기를 마친 리퍼트 대사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연세대학교를 방문해 감사 인사를 했다.

리퍼트 대사는 2015년 흉기 피습으로 얼굴 등에 큰 부상을 입었을 때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아 연세대와 인연을 맺었다.

그 뒤로 연세대에서 특강을 하고 감사의 뜻에서 백양로에 은행나무인 ‘리퍼트 나무’를 기증하기도 했다. 아들 세준, 딸 세희 모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태어났다.

리퍼트 대사는 지난 20일 인천공항에서 출국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주한 미국대사로 근무할 수 있어서 큰 영광입니다. 한국을 떠나서 슬프지만 계속 한미관계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와 제 가족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같이 갑시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대통령 탄핵심판 결론 ‘2말3초’? … 오늘 일정표 나온다

현재, 추가 증인 채택 여부 결정… 박대통령측 강공 전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탄핵심판이 이 시기 즈음에 끝나 기각될 경우 박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하지만 인용결정이 내려질 경우 차기 대선은 4월 말~5월 초 열리게 되며, 결론 시점에 따라 박 대통령은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에 직면할 수도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3일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기일을 열고 국회와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하는 증인신문 일정을 논의한다. 특히 박한철 현재소재가 추가 증인 채택 여부를 이날 재판 중 결정할 수 있다고 예고한 만큼 탄핵심판 전체 일정이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증인신문이 마무리되고 양측 주장이 정리되면 변론을 끝내고 약 2주간 재

판관 회의와 평결을 거쳐 의견이 최종 정리되면 결정문 작성에 돌입한다.

현재 국회 측은 현재가 검찰 수사기록을 대거 증거로 채택함에 따라 기존 신청 증인 중 10명을 철화하고 이들의 검찰 신문·진술조서를 대신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 측은 황창규 KT 회장 등 기존 증인 신청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리려는 입장이지만, 최종적인 채택 여부는 현재에 달려 있다.

법조계에선 현재처럼 현재가 주 2~3차

레 변론을 열며 한 번에 증인 2~3명을 부르는 속도를 유지할 경우 마지막 변론이 2월 중순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본다. 재판관 회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 등에 걸리는 약 2주의 시간을 고려하면 선고 역시 2월 말에서 3월 초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편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강공으로 전환하고 있다.

복수의 박 대통령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탄핵소추안 수정안 제출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태양광발전소 분양모집

해만 뜨면 돈이 들어오는 태양광발전사업

이런 분께 권합니다!!

▶안정되고 지속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

▶사업에 대한 투자를 고민하고 있으신 분

▶사업(장사)에 노하우 및 기술에 대해 자신 없는 분

▶창고, 축사, 공장, 땅 등 기타 부동산 소유하신 분

투자에 장점!!

▶특별한 기술적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적자를 보지 않는 사업!!

▶안정적인 전기 매입처
(한국전력·전력거래소 / 18개 메이저 발전자회사)

▶안정적이고 반영구적인 발전설비
(모듈 수명 20년 보증, 보증서 발급)

상담문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주)이엠
ENERGY Marketing
www.emsolar.kr

태양광발전소 투자하고 싶은데 건물·땅 없는 분!!

H·P 011-608-9593

CALL CENTER 1522-6570

분양모집중

전국전역의 회사보유분 발전소

태양광발전소

전국전역의 회사보유분 발전소

태양광발전소

전국전역의 회사보유분 발전소